

##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청빙건 통과... 불법성 논란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임시공동총회가 무산됐다. 28일 오후 4시 열리기로 했던 임시공동총회는 총회가 불법이라는 당회원측과 총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장로 및 안수 집사 등 일부 교인들 간의 마찰로 인해 경찰에 해산을 통고받고 무산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 공동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의 시비가 있어 임시공동총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회는 열 수 없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며 총회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기에 이 모임은 더 이상 교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해산을 통고했다.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은 교인들은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해 임시공동총회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오늘 어떤 모임도 교회 또는 교회 건물에서 할 수 없다”며 해산할 것을 거듭 통고했다.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은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임시공동총회를 개최하려다 또 다시 경찰로부터 해산 통고를 받았다.

### ▶ 반대측과 마찰로 경찰의 해산통고 받고 장소 옮겨 강행

또 한 차례 해산 통고를 받은 일부교인들은 임시공동총회 강행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에 모였고, 이날 임시공동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담임목사 청빙, 시무장

로 3인 재신임, 신임장로 피택, 정관 및 헌법 개정 등의 안건을 통과 시켰다. 담임목사 청빙에 거론된 목회자는 현 하와이 예테랑교회 담임 송창현 목사다.

150여명이 참여한 임시공동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담임목사 청빙건은 149명 찬성으로, 신임장로 피택은 만장일치로, 시무장로 재신임 건은 145

명의 반대로 모두 통과됐다. 한편 이날 당회원측 장로들은 서신을 통해 이번 임시공동총회가 불법이라는 것과 정기 제직회와 공동총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혔다. 이들은 이 서신에서 이날 총회는 당회가 소집한 총회가 아니기에 불법이며, 제직회는 당회가 우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열려야 하지만 일부 집사들이 폭언을 하며 당회를 열 수 없도록 방해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제직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동총회는 입교인이 몇 명인지 안 후 개최할 수 있으나 출석 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고, 교인 교적부 또한 다 없어진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강준민 목사와의 소송 문제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을 하기엔 힘겨웠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 부활절 메시지



**박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과 비전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분들에게

에 대한 신봉주의의 승리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보여

도 했것”(고전15:14)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에 대한 의미를 말하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용

없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 준 영광스러운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부활의 사건도 십자가를 근거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답게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며, 인본주의

주는 사건이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

지물이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건이요, 영생의 근거가 되는 복된 사건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기를 바

랍니다. 오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부활의 은총과 새 생명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던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A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김기섭 / Sr. Pastor Kisup Kim

#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2010 제6차 영적쇄신집회

**집회일정**  
4월 8일(목), 9일(금) 오후 7시 30분, 10일(토) 오전 6시 20분, 오후 7시  
11일(주일) 오전 8시, 9시 50분, 11시 40분 (동시통역 및 Childcare 제공)  
@ LA사랑의교회 본당 (한인타운 6가와 La Fayette Park 코너)  
Tel 213-386-2233 www.LASarang.com

**김남준 목사님 프로필**  
열린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목회학 석사, 신학 석박사 과정 수학, 인양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 역임,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기독교 출판문화상 3회 수상 (97·2003·2005년), 저서 『개으름』 (생명의 말씀사), 『존 오웬의 신학』 (부흥과 개혁사) 외 다수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집필가.

**교회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8시 (1부), 9시 50분 (2부), 11시 40분 (3부), 오후 2시 (대학청년부)  
\*교육부 주일예배는 2,3부시간에 드립니다.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새벽 6:20  
사랑토요(한글)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20 / 213-880-3570  
LASR Charter School (고등학교 졸업장, GED) 714-720-5113

# 미 전역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 평균 50%

## ■ 노스 데이코타 주 61%로 1위, 비스 마크 시티는 참여율 1위 도시

미국 전역의 2010년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이 3월 31일 현재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 가장 센서스 참여율이 높은 주는 68%로 사우스 데이코타 주로 나타났으며, 61%로 노스 데이코타 주가 2위, 네브라스카 주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동 4위는 아이오와 주와 위스콘신 주가 뒤를 이었다.

센서스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는 68%를 기록한 노스 데이코타 주 비스마크 시티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2위는 66% 미시간 주 리보니아 시티와 필라델피아 주 밀크리크 타운십이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는 아직 가장 참여율이 높은 도시 순위 선정되지 못했으며, 센서스국 웹사이트에는 노스/사우스 데이코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주들만 평균 60% 이상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평균 21%~40%를 기록하고 있다.

센서스국은 지난 3월 15일부터 미 전역 1억 2,000여 가구에 2010년 센서스 설문지를 발송했다. 센서스국은 "만약 미국 내 인구 전체가 100% 센서스 설문지를 발송할 경우, 1.5 빌리언 달러(약 1조 7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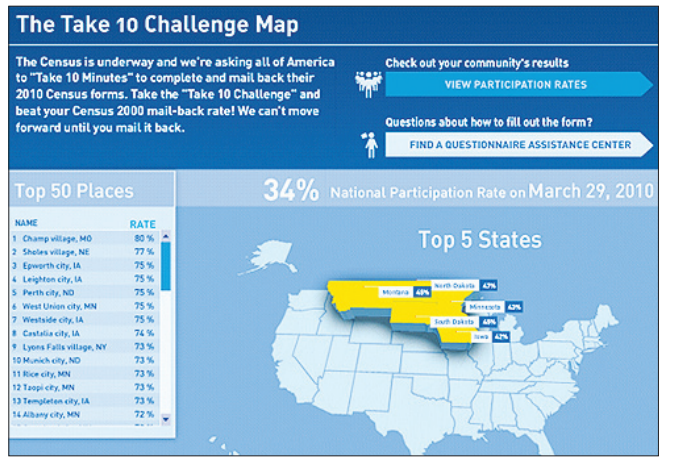
억 원)를 절약하게 된다"며 설문지 반송에 모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미 전역 각 가정으로 발송된 센서스 설문지가 4월 말까지 센서스국으로 반송되지 않을 경우, 센서스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센서스 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할 경우 한 가정당 약 70분이 소비되며, 설문지 반송율 1%가 증가되면 약 8,500만 달러가 절약된다.

각 기관단체들도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센서스국에서는 웹사이트에 최근 인구조사에 대한 안내를 한국어 제작, 센서스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디오에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며 설문지에 작성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설문지내 10가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주고 있다.

민족학교 유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일부 한인들 중 센서스에 대한 오해 혹은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센서스 설문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영어에 불편함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충분히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에서



©U.S. Census Bureau

는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된 약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마다 LA 한인타운 내 가정들을 직접 방문에 센서스 설문지 작성을 돕고 있다. 아태법률텐터는 '필인아우어퓨처(www.fillinourfuture.org)'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해 아시아 태평양계 시민들의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웹사이트에는 각 주에 해당하는 모든 센서스 기본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재일 기자)

## 美 보수-진보 교계, '워싱턴 정치 문화선도' 결의

분열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최근 미국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뜻을 모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교회 지도자 1백여 명은 지난 주말

탄하며,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품격과 예의를 갖춘 것을 지도층에 촉구했다. 이번엔 발표된 보수-진보 기독교 지도자들의 규약은 이

주 분열의 상징이 되어 왔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1백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규약에 서명함으로써 "정중한 논쟁이 무너져버린 이 나라에서 새로운 본을 세울 것"을 "하나님

공동의 기도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신성시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을 남겨 놓자"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깊이 분열된 이 나라에 교회가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규약에 서명한 1백여 명의 지도자 가운데는 전미복음주의협회(NAE) 리스 앤더슨 회장, 기독교세계관을위한척콜슨센터와 프리즌펠로우십 창립자인 척 콜슨 목사, 전미청년사역네트워크 폴 플리쉬먼 회장, 데이빗 네프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편집장, 짐 윌리스 소저너스 대표, 조지 우드 하나님의 성회 총무 등이 있다.

(손현정 기자)

### 1백여 지도자들 '공적 정중함' 위한 규약에 서명

'정중함의 규약: 함께 생각하자'를 발표하고, 정치 문화 선도에 교회가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정중함'의 덕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초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다.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중함'이 워싱턴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개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정중함'을 회복해나가는 데 있어 교회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으로, 정계만큼이나 서로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도의를 벗어난 비난과 공격으로 얼룩진 교계 내의 분위기를 쇄신해나감으로써 사회적 본보기가 마련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연합보다는 너무나 자

과 또 서로 앞에서" 맹세했다. 규약은 성경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교회 간 대화에 헌신할 것과,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를 존중할 것,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신앙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 없이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음을 밝힐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 간 대화에서

## 美 목회자들 '신학교육 여전히 중요해'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변함없이 신학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학이 목회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화 조사에 응한 총 1천 명의 목회자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가운데, 전체의 85%가 신학대학(seminary) 과정을 이수했다고 답했다. 또한 신학대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은 배운 것들을 실제로 목회에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71%가 "확실히 그렇다", 24%가 "다소 그렇다"고 답했으며, 3%와 1%만이 각각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신학대학 출신자 중 83%는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이같은 응답은 박사 수준 학위 소지자들 가운데서 9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타트 맥코넬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신학대학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일 수 있다"며 "이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신학대학 지원자 수가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육이 갖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편, 목회자들 대다수는 신임 교역자를 임용할 때 신학교육 수준 외에도 사역 경험과 신앙 등 다른 자질들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정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2009년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 20-20 클럽 가입!

"iTalkBB가 코리안 메이저 리거 추신수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추신수 플랜으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 추신수가 선택한 iTalkBB [추신수 플랜]으로 로컬·장거리·국제전화비 시원하게 날려 버리세요!

### [30일 환불보장]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집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 폰어댑터 무료 대여!

- 지금 가입하시면,
-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개통비 (\$29.99) 면제 + 협평비(\$9.99) 면제**
- 행사기간: 3월 16일 - 3월 31일

**추신수 플랜**

**\$9.99**

첫 3개월간, 이후 1년간 \$24.99/월



한 명 추천할 때마다 현재 이용중인 플랜 1개월 무료! 추천 받은 분께도 500 포인트 지급(\$5 상당)

아·이·토·크·비·비

**iTalkBB**

www.koreadaily.com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http://iTalkBB.Koreadaily.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센터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해당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기간 30일째를 포함해 총 15개월 2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변경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그램 기간 동안 발인 된 서비스 비용을 한 번에 부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213-364-0779 또는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http://www.koreadaily.com)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비비 많이 사랑해주셔서  
추신수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

## LA사랑의교회, 제2차 의료사역축제 성황 '행복한 삶 건강이 첫걸음'

건강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민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중요한 건강을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살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이민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 제2차 의료사역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사역축제는 센틴센트 스태프들 10여명이 나와 검진을 위해 교회를 찾은 이들을 검진했다. 지난해 의료사역축제는 5백여명이 찾아 건강에 대한 이민자들의 관심을 높음을 보였고

올해도 역시 수백명이 찾아 건강에 관심이 높음을 보였다. LA사랑의교회 의료사역축제에 이민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20여분의 검사비용으로 일반 병원에서 4~5백불을 주며 하긴 힘든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 일반적인 혈액검사는 10여가지나



LA사랑의교회를 찾은 이들이 피 검사를 받고 있다. ©이태근 기자

의료사역축제에서 하는 피 검사는 무려 36가지나 된다. 이날 피 검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검사는 B형 간염, 갑상선, 전립선 암, 골다공증 검사 등이었다. 김기섭 목사는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역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이들이 축제를 통해 건강검진도 하고 활기차게 이민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축제 개최 경위에 대해 말했다.

(이태근 기자)

## 월드아가페, 도미니카·아이티에 고아원 설립

월드아가페(이사장 권태일 목사, LA지부장 우연식 선교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인접국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고아원을 설립한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아이

선교사로 활동 중인 김영구 선교사의 소노마 교회 부지에 세워진다. 소노마 교회는 도미니카 외곽 지역 산토도밍고에 위치해 아이티 지진 피해를 입고 도미니카로 건너온 아이티 난민 아이들 7명

리고 거실로 이뤄진다. 설립 비용은 월드아가페가 한국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지원된다.

월드아가페는 현재 아이티에도 현지 상황이 안정 되는데로 곧 고아원을 세울 계획이며 현재 건

적으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중남미 지역에서의 사역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아가페는 지난 2007년부터 세계 각국에 고아원을 설립하기 시작해 현재 15개국에 16개의 고아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고아원은 그룹홈 형태로 5~10명 정도의 고아들을 현지 선교사가 보모를 두고 기독교 정신으로 돌보며 차세대 지도자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탄자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몽골,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설립해 운영 중이다. 보통 3,000~5,000불로 현지에서 주택을 임대한 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월 500~800불의 운영비로 시설이 운영된다.

월드아가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한인 및 현지인 단기 거주 시설인 휴리스 센터를 설립하고 제3세계 10개국에 고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교회나 개인, 기관이 직접 원하는 지역에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으로 운영도 가능하다. 고아원은 월 500불로 고아그룹홈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문의: (213)477-5318

(지재일 기자)

## 사회의 어두운 곳에 성결의 빛 비춰지길

### 미주성결교회, 30주년 기념 엘에이 지역 성결인 대회

미주성결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엘에이 지역 성결인 대회(대회장 김광수 목사)가 부활주일인 4월 4일 오후 6시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유니온교회(담임 이정근 목사)에서 개최된다. 엘에이지방회와 엘에이동지방회, 남부지방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성결인대회 설교자로는 미주

성결대학교 명예총장인 이정근 목사가 초청됐다.

성결인대회 준비위원장 김수철 목사는 "성결교회가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좀 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두운 곳에 성결의 빛을 비추기 바란다. 또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는 또 다른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여진 헌금은 최근 지진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을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 설립에 사용된다.

(이태근 기자)

## 커뮤니티 봉사 기관 리더와 사역자 간의 모임 '동행'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리더와 선교 사역자들간의 모임인 '동행' 제1회 모임이 3월 27일 오후 6시 나눔선교회에서 열렸다.

리더와 사역자들간의 교제와 교류를 위한 이날 모임에는 남가주밀물교회, 아가페선교회, 기독교상당교회, 로템전인 치유상담센터, 율타리선교회, 소중한사람들, 한인중독증 회복선교회, 나눔선교회 등에서 참여했다. 참여한 이들은 각

사역의 정보를 나눴고 서로 도움을 주는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보다 많은 단체에서 참여해 서로간 사역을 알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며 커뮤니티를 위해 사역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모임 소감을 전했다. (이태근 기자)

## 고아들 현지 선교사가 양육해 차세대 지도자 양성 목표

티를 방문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고 온 월드아가페는 아이티의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아이티와 인접국가 도미니카에 설립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이미 지난달 고아원 공사까지 작되어 약 1200 스퀘어피트 크기로 지어진다. 1층짜리 고아원은 방 8개, 화장실 두 개, 부엌 그

물 임대와 부지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월드아가페는 이번 고아원 설립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도미니카, 아이티에 건립중인 고아원 건축 현장. ©월드아가페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 **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로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학비 선착순 파격할인 \$140/월  
Power English 무료청강 기회  
I-20 자체발행, 석,박사 학위  
특별장학금, 별도사례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희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벨렐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미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헌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

UC 계열대학-UC 엘에이(UCLA), UC 얼바인(UC Irvine), UC 샌디에고(UCSD), UC 버클리(UCB), UC 리버사이드(UCR), UC 산타바바라(UCSB), UC 데이비스(UCD), UC 산타크루즈(UCSC) 8개 대학들과 캘 폴리 포모나(Cal Poly), 캘리포니아 공대(Cal Tech) 총 10개 대학이 모여 봄

생들에게 접근했다. 첫째, 같은 대학뿐만이 아닌 다른 캠퍼스 학생들과의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공감하는 주제와 캠퍼스마다 다른 상황 등을 나누며 학업과 사역의 재미를 몸감아 나눴다. 둘째, 프로그램의 차별화다. 각 학년들마다의 시간이 주어졌고 특별히 졸업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휴식을 만끽하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5명의 학생들 데리고 온 백진희 간사는 "이번 2박 3일을 통하여 학생들이 휴식을 잘 취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며 다른 캠퍼스 멤버들과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의 큰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학생들은 매일아침 밝은 햇살을 맞으며 삼삼오오 큐티 시간을 가졌고, 뜨거운 찬양과 각 캠퍼스 마다 준비된 간증, 찬양, 스페셜 퍼포먼스, 동영상, 스포츠 타임 등 학업의 부담감과 그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올해 마지막 한 쿼터(10주)를 남겨둔 10개 대학 학생들은 재충전과 몸과 마음의 휴식, 특히 영혼의 휴식을 통하여 다가오는 학기를 힘차게 출발하기를 기대해 봤다. <KCCC LA 이기승 간사 제공 >

## 봄 방학 UC 계열대학 KCCC학생들 재충전 시간 가져

방학 수련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3월 22일부터 24일 까지 2박 3일간 Palm Desert La Quinta Hotel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200여 명의 학생들은 그간 공부와 사역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반 학생들만의 시간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됐다. 졸업을 준비하며 사회 진출을 앞둔 그들만의 고민과 걱정을 졸업반 세미나를 통해 부담감을 줄여 나갔다.

UCSD 졸업반 김선웅 학생은 "학교에서 긴장하며 공부하고 바쁜 시간 중 큐티와 제자화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수료생들과 박다윗 목사(앞줄 가운데). ©이태근 기자

## 생명의전화 상담 봉사원 제14기 수료

"여러분은 오늘부터 생명의 전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의 고충을 전화 상담으로 돕는 생명의전화(대표 박다윗 목사)의 상담 봉사원 제14기가 수료됐다. 생명의전화는 상담봉사원 수료 감사예배를 25일 오후 7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드렸으며, 이날 수료한 봉사원은 23명이다.

영 목사는 수료자들에게 상담자로서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 목사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다루는 상담자들이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말로 감동시킬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없다. 또한 상담자는 말을 삼가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말을 삼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날 수료한 수료자들은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50시간 훈련을 받았다. <이태근 기자>

## 참된 예배를 통한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쉐퍼드 미니스트리(리더 이하영 전도사)는 매주 화요일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비전아트홀에서 LA 화요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참된 예배를 통한 이 땅의 부흥과 크리스천 위상 문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을 품고 2008년 4월부터 화요찬양을 시작했다.

실력 있는 연주자들과 스태프 25명으로 구성됐다. 예배의 부흥을 이끄는 찬양사역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쉐퍼드 미니스트리는 2004년 10월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첫 초청집회를 시작으로 LA, 풀러튼, 애너하임 등 지역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쉐퍼드 미니스트리(Shepherd Ministry)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배를 섬기는 미주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역단체다. 미니스트리는 미주 15개 교회의 찬양과 예배 인도자, 세션들, CCM가수, 음악대학 교수, 실용음악 전공자 등

LA 화요찬양 예배 문의 이하영 전도사 213) 249-4855, hymn102@gmail.com LA 화요찬양 예배장소: 505 S. Virgil Ave, #300 Los Angeles, CA 90020 <지재일 기자>



## '활발한 노숙자 선교 사역 위해 이전 했습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새 센터 공사 위한 도움의 손길 호소

지난 10여년간 LA다운타운 노숙자들에게 급식 사역을 펼친 예수사랑세계선교회가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센터를 이전했다. 센터 위치는 7가와 샌페드로다.

현재 센터는 선교단체들과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센터는 현재 노숙자들을 씻기고 먹음 양식을 주며 예배 드릴 장소로 거듭

나기 위한 공사를 앞두고 있고 있으며, 센터 공사를 위한 설계만 완성된 상태다. 선교회는 지금까지 조병국 목사가 후도과자를 팔며 얻은 수익금으로 노숙자들을 섬겼다. 조 목사는 "렌트비로 나가던 가게 지출을 줄이고 렌트비용이 저렴한 센터로 이전해 지출을 줄여 그 비용만큼 노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센터 이전을 했다"며 센터 이전 소감 경위를 밝혔다. "곧 더운 여름이 오는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과 청결함입니다. 깨끗히 씻긴 노숙자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단정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센터 공사 비용만 어렵잡아 10만불, 조 목사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며, 어려운 이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새 센터 앞. 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펼쳐질 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213-445-2488 <이태근 기자>

## 여성의 목소리로 연주한 '메시아' 공연 성황



사랑여성합창단.

사랑여성합창단(지휘 노형건 단장)은 3월 27일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합창단은 1.5세 작곡가인 오페라 캘리포니아

최정휘 뮤직 디렉터가 혼성 4부 합창곡인 헨델의 메시아를 여성 3부 합창으로 편곡한 현대적인 퓨전 스타일의 작품을 여성들만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연주했다. 공연에는 메시아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성에 대한 합창곡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솔로리스트의 연주곡을 다수 선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한 성도는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메시아 공연이 너무 새로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재일 기자>

# 주택 차압/퇴거 중단

**용자 조정 (후불)**

- 세컨홈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용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음)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증각 차압 중단**

- NOD, NOT 받으신 분
- 용자 조정, 숯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 (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증각 퇴거 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숯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4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최진영 씨도 결국 누나 곁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결코 자살이 미화해서는 안 된다.

### 가톨릭은 교구 차원 평신도 상담사 양성 중

故 최진실 씨에 이어 동생 최진영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주문

정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는 각종 사고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합몰된 천안 함 탑승자나 실종자 가족들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군가 가까이 붙어서 계속 격려해 줘야" 김총렬 교수는 "반응성 우울증에 들어간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해 교회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붙여 감독하게 하든지,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가서 드러주는 것도 좋지만 구약장이나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가서 인간적으로 많이 격려하고 끌어주는 일도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허탈함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기댈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믿음"에 대한 교육이 이때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그는 "교회에서 반응성 우울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모아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고,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 내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단단해지고 발전한다는 쪽으로 믿음을 주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극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욥이 아내의 자살 권유를 이겨내는 이야기나 바울의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나오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등이다. 김 교수는 "히브리서 11장의 기라성같은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느냐"며 "이러한 교육은 신앙적인 교육이어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부교역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실시

할용을" 김총렬 교수는 교회가 이같은 현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사고를 당했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목회적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회가 다 복 받고 좋은 일을 해야 사람이 모인다고 부정적인 일에는 손을 대려 하지 않고, 위기가 어려운 삶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추기경 산하에 평신도들을 2년씩 교육하면서 매년 1백여명씩 양성하고, 우수한 사람들은 3년 더 교육시켜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상담사로 전문화시켜 각 교구에 파송하고 있다"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상담학 전공자들을 활용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다시 비극이... 한국교회 자살예방 시스템 관철나

하고 있다.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자살자 가족들의 고통이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와 부모,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등 자살로 사망한 주위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유가족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목격한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다구나 한국 사회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들은 자살 사실을 숨기거나 장례를 서두르고, 자녀나 친지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적절한 애도나 감정의 정리가 되지 않고, 개인적인 수치심을 느낀다. 사단법인 한국생명평화회 최경미 사회복지사는 "자살자 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일

인 자신도 추스리지 못한다. 자살 위험까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작 이를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개월간 '기독교인의 자살'에 대해 연재한 김총렬 교수(한일장신대)는 "일단 그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이 크고, 그 상실감이 반응성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한동안 우울 상태에 들어가는데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 있고, 최소한 1-2년은 잘 지내야 하며 3년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기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또다른 사고가 터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중점을 두고 돌아야 한다"며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가 100%"라고 덧붙였다. 또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기도나 작정기도를 하게 하고, 가급적 교회에 매주 나오게 하고, 상담 전문 부교역자들에게 상담도 받게 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 정도만 해도 유가족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이들은 예나 저나 급격히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격려와 위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임목사들도 주일 설교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거나, 가끔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울증과 자살예방 등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나 극복하는데 따라 삶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 굉장히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에서는 현대 사목에서 영성적 심리 상담이 중요하다는 교구의 판단과 신자 개개인을 위한 상담 능력이 절실하다는 일선 사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대교구 내에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을 개소하고 평신도 상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가톨릭은 개교회별로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담마저도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상담을 전공한 부목사들이 있음에도 교회에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 최삼경 목사 등 이단감별사, 조직서 제외돼

### 한기총 이대위 전체회 의서 이대위 조직 발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는 지난 11일 오전 7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 21-2차 전체 회의를 갖고 이대위 조직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대위 위원 명단에는 기존에 오랜 기간 이대위에서 활동하며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최삼경(예장통합·빛과소금교회) 박형택(예장합신) 최병규 목사(예장고신 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소장) 등은 누락됐다. 다만 진용식 목사(예장통합·안산상목교회)만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

렸다. 또 위원들의 명단도 작년보다 줄었다. 지난 11일 한기총 이대위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설왕설래가 많았다. 이대위 조직구성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총대위원과 전문위원 등 주요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고창곤 목사가 추천한 인사는 반영되지

않고, 이대위 관계자도 아닌 한기총 내부 인사가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의 말쑥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기득권층에서 이대위 상담소장으로 작년 말 임명된 김항안 목사(예장통합·새한국중앙교회)에 대해 새로운 대표회장 체제가 들어선 만큼 재임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 고창곤 목사는 이대위 조직발표 이후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조직구성에 있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한기총 내부와 교계 일각에서는 조직구성과 관련 대표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 일일이 간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조직 구성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이대위 전체회의에

서 새롭게 조직이 정비되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밀려나게 되면 서울 한해 한기총 이대위 사역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관된 통일교대책위원회(소위원장 정해송 목사), 신천지대책위원회(소위원장 진용식 목사), 이단사이비피해자대책위원회(소위원장 한창영 목사) 등 소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기사제공=교회연합신문>

## 로스앤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고 문 - 박영창, 임동선, 조천일, 류당열							
자 문 - 구기조, 김사무엘, 함명철, 홍영환, 반종근, 김영모, 원희철 성총정, 김재연, 황천영, 김민식, 이재영, 김상덕, 송정명, 석청균							
임 원 - 회 장: 표세홍 / 부 회 장: 권오달, 박효우, 방동섭, 이성주, 백형권, 강신욱 / 협 력 부회장: 엄 테레사, 임형주, 김창겸, 이주호, 백형로, 윤삼혁							
총 무: 백성식 / 부총무: 양병삼, 김원락, 정우성, 김광삼 / 협 동 총무: 김영배, 지윤성, 이상억, 마원철 / 서 기: 서요한 / 회 록 서 기: 전석호							
회 계: 이병용 / 부 회 계: 김재열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분과: 김총립							
예 배 분과	진 유철	장 로 분과	이 신모	간 병 인 분과	자 넷 최	천 교 분과	서사라
교 육 분과	김 회창	부 정 부 때 추 방	김 문철	원 로 분과	유 응열	여 성 분과	서인애
선 교 사 분과	이 재환	사 회 단 체 교 류	김 한선	언 론 분과	드 보라 김	의 료 분과 (한)	박영권
여 교 역 자 분과	김 명숙	선 교 분 과	이 원갑	교 회 객 신 분과	방 동섭	노 속 자 분 과	그로리아김
성 경 번역 분과	이 원열	음 약 분 과	대 이빛	무 료 병 원 설 립	정 순규	교 정 분과	정영득
성 경 정독 분과	김 정득	의 료 선 교 사 분과	백 형권	호 스피 스 분 과	이 정우	권 사 분과	박춘자
홍 보 분과	남 철우	평 신 도 선 교 분과	임 혜빈	개 척 교 회 분과	이 중용	한 이 천 선 교 류	노인국
청 소 년 분과	박 용수	신 학 분과	김 인수	전 도 사 분과	채 동선	부 호 사 분과	박후식
의 료 분과 (양)	강 신욱	체 육 분과	장 병철	봉 사 분과	조 후연	윤 리 실 천 분과	유영석
상 담 분과	다 윳 박	복 지 분과	박 성근	통 역 분과	홍 윤표	기 도 동 지 회	서요한
장 애 우 분과	공 노 혜미아	찬 양 율 동 분과	구 옥현	영 성 분과	유 기중	유 아 복 지	이순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 회 장: 권오달, 박효우, 방동섭, 이성주, 백형권, 강신욱  
협 력 부회장: 엄 테레사, 임형주, 김창겸, 이주호, 백형로, 윤삼혁  
총 무: 백성식  
부 총 무: 양병삼, 김원락, 정우성, 김광삼  
협 동 총무: 김영배, 지윤성, 이상억, 마원철  
서 기: 서요한 / 회 록 서 기: 전석호  
회 계: 이병용  
(분과 위원회)  
(상설기구) 이단대책분과: 한선희 법률분과: 김총립

로스앤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T. 213-248-1143 www.ckcla\_onmam.com  
1616 S. St Andrews PL #3 LA CA 90019

# “G20 정상회의 개최되는 올해 부활절은...”

## 한기총 부활절 메시지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에서 2010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광선 대표회장 이름으로 발표된 메시지에서 한기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다”며 “하나님과 분리돼 죽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고,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으로부터 1백년 전인 1910년 경술년은 국치(國恥)가

있던 해였지만, 2010년 올해 우리 민족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며 “특별히 올 2010년 부활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지난 1백년을 되돌아보며 민족의 내부적 과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1백년을 바라보며 세계 진리 경영에 쓰임받는 섬김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2010년 부활절은 세계 교회 앞에서 한국교회가 갖는 이러한 사명에 대한 자각을 가슴에 품고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평화를 전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오늘날 지구촌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던 인간의 탐욕이 빛이던 사회적 충격으로 심각한 갈등과 가정 해체 그리고 공동체 붕괴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전

적으로 깨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경종이기도 하다”며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기애를 버리고 예수께 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이신 모범을 따라 그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을 결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웃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평화와 65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인 온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출발”이라고도 했다.

한기총은 “이번 부활절을 통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재현됨은 물론, 민족 전체가 세계사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대용 기자)

## 김길태 사건 피해자 또래들은 사형제에 ‘반대’

중학생들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신문인 나리뉴스(대표 차현욱)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중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31%)보다 높았다. 5%는 모른다고 답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중학생들은 ‘사형을 한다 해도 흥

팔찌(10.4%)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범죄자 몸 속에 바코드를 넣어 가는 곳마다 감시의 대상이 되게 하는 처벌’이라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나리뉴스는 “이번 조사는 김길태 사건 등 자신들과 또래인 여중생이 성폭행 및 살인에 희생당한 후 중학생들이 처음으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최근 사형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

## ▶ 통합 참소리, 150억 대출 용처와 부동산 투기의혹 등 공개질의 최삼경 목사, 교회 재정 의혹까지 제기되

삼신론과 월경임태론, 그리고 불법적·자작자연식 이단 정죄로 술한 물의를 빚어온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전 소재 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번에는 교회 재정의혹까지 제기됐다.

예장 통합 내 개혁 성향 목회자 단체인 ‘참소리’(대표 신창수 목사)는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 통합 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소리 대표 신창수 목사와 예장 통합 전직 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과 불법성 등을 지적했던 바 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서 참소리는 최삼경 목사의 교회 재정 운용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최 목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우리는 최근 최삼경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 성도들과 최 목사에 의해 출교된 자들을 면담한 결과, 그 내용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바”라며 “이들은 최삼경 목사가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용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유언비어로 간과하기 어려운 데다가 만약 사실일 경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

다”며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삼경 목사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최삼경 목사에게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교회를 담보로 한 150억여원에 해당하는 대출이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

확보하고 있고, 회견 이후에도 교회 출교자들을 만나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단 감사위에는 최삼경 목사가 연루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교단 지도부에는 감사위 조사결과

사 “이같은 내용을 총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촉구할 것”이라며 총회와 최삼경 목사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항의집회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통합 감사위 감

사 “이같은 내용을 총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촉구할 것”이라며 총회와 최삼경 목사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항의집회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통합 감사위 감

사 “이같은 내용을 총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촉구할 것”이라며 총회와 최삼경 목사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항의집회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통합 감사위 감



참소리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 통합 총회 지도부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류재광 기자

## 중학생 대상 설문조사서 31%만 찬성

악법이 줄어들다는 확신이 없다’(65.9%)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었고 ‘죄는 밟지만 사람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16.6%)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9.3%) ‘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생명은 처벌할 수 없다’(7.5%) 순으로 답했다.

반면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홍악법이 줄어들다’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을 죽인자는 죽어야 한다’(15.48%)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13.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인권은 없다’라는 의견(1.29%)도 있었다.

이와 함께 ‘사형제 보다 더 좋은 처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종신형을 답한 학생들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노동형(14.4%), 전자

고 있는만큼 이들의 의견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나리뉴스 정민석(15, 양명중2)군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과 신문이 앞다투어 보도에 열을 올린다”며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또래인 중학생들의 의견은 관심 밖인 실정이다. 안타까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나리뉴스 차현욱 대표는 “이번 조사는 김길태 사건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중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첫 설문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어리다’는 편견 보다는 ‘당사자’라는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인지 여부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용처 ▲재정난을 겪는 시골 교회에 왜 고가의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으며, 20여억원이 들어갔다는 소문과, 그 과정에 개인적 착복이 있었다는 의혹 ▲교회 설립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속칭 알박기) ▲성도들에게 상습적 폭언을 하고 징계 및 출교 등을 일삼는다는 의혹 등이다.

김창영 목사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최삼경 목사측에는 삼신론과 월경임태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임태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통합총회와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최삼경 목사가 깊이 회개하고 자기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신창수 목

사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예장 통합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는 최삼경 목사의 이대위 서거직 선임과 총회 보고 등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창영 목사는 기자회견 직전 감사위원장 강상용 장로와 만나 대화할 결과, 현재 이같은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임원회에서 최삼경 목사측에 감사위 결과를 받아들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재광 기자)

시마 때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폴 에일먼 목사(CCC 부총재)는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들이,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들이 모두 대항쟁이었고 ‘대안’이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

안찬호 선교사(에나 감리교 일무부 타니 마사이 지방회 선교목사) 역시 강의를 통해 선교를 도전하며 “우린 때로 너무 오랫동안 위명업을 한다. 달려가기를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너무 오래하면 무리기도”라는 것처럼 선교는 이 후속무에서 “격자화해

사기 글꼴을 올리자 금세 가득 차서, 30년 차를 배워야 볼 정도

주님을 믿는 이 교회

배움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조병국 목사

975 S. Westmoreland Ave #2 LA CA 90006

Tel. (213) 445-2488 | www.jlwmission.org

##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가장 귀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정신차려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속독이 아닙니다. 정신차려 바르게 읽는 정독입니다.

- 개인별 교육훈련(성경정독특별교육)**
  - (1) 장 소: 성경정독연구원(전화: 323-737-1445) 1171 s. crenshaw pl. L.A. CA 90019
  - (2) 일 시: 매주 수, 목요일 오후 4시-8시
  - (3) 대 상: 목회자, 사모, 장로, 권사, 신학생, 청년
  - (4) 준비물: 생수1병, 성경, 찬송가, 봉헌 (총무:솔로몬 목사 (전화: 323-734-4271))
- 단체별 훈련 실시(교회별, 지방별, 노회별, 학교별)**
  - 교회훈련: 제직훈련, 교사훈련, 철야훈련(5시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4:5)

### 성경정독연구원(진리학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126:5-6)

전화 (323)737-1445 H.P (323)388-7174 / 1612S. St. Andrews Pl. L.A. CA 90019

### 건강과 치료 (성경적 치유)

- 당뇨병, 고혈압: 투병훈련 3-4일 만에 약 복용없이 정상수치가 됨
- 관절염, 심장병, 알라지: 4-5일 만에 약 복용없이 증상이 사라짐
- 간경화, 간질환: 일주일내에 건강한 혈액을 모두가 확인하게 됨
- 비만, 고 콜레스테롤: 4일째날 5-10파운드 감량됨
- 갑상선, 전립선, 중풍, 자궁근종, 루퍼스: 근치법을 배움

빛   생수   소금   초식   과일   믿음

# “두날개 핵심은 축제적 예배, 전인적 소그룹 모임”

두날개 네트워크 워싱턴지역 모임이 최근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담임 박은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두날개 양육시스템'이란 '성령이 함께 하는 축제적 예배'와 '전인적 소그룹'을 양대 축으로 삼고 전도, 정착, 양육, 훈련 등 6단계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군사를 길러내는 목회 시스템을 말한다. 8년간 5,500여개의 교회에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적용,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아래는 김성곤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두날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대학 때 건축을 전공했고 31살에 건설 회사를

같은 개념이다. 또 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번식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두날개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은 어떤가  
긍정적이다.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5,500교회가 다녀갔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훈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변의 추천으로 참석했다는 분이 가장 많다. 노회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곳도 많다.

2002년 처음 열었을 때 200명이 모였다. 그 다음해부터 2배씩 증가해 15,000명까지 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15,000명만 받는다. 정말 충격이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그럴



## 북미지역에 두날개 네트워크 조직한 김성곤 목사

독립적으로 세운 적이 있다. 32살에 신학을 했는데 보수교단에 있다 보니 변화가 필요했다. 당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 10년 연하의 청년들과 5년을 훈련받았다. 그 때 깨달은 것이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체계적인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평신도의 탁월함'이었다. 이런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세계비전을 이루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두날개양육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두날개와 가정교회, 셀교회 등 다른 소그룹 사역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분야는 연구를 해보지 않아 대답을 하기 힘들다. 두날개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복음의 절대능력'의 회복, '제자 삼는 비전 회복',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이 3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날개를 통해 목회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길러질 수 있나  
어떤 시스템이든 목회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두날개는 본질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하다보면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시켜준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다. 'Lordship'이 'Leadership'이다.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두날개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교회 연합에 대해 한 마디  
두날개는 연합 그 자체다. 자주 모여야 한다. 북미는 이번에 두날개 네트워크 지역모임을 시작하지만 한국은 벌써 7년째다. 모임을 가면 천국 같다. 노회에서는 서열 따지고 하지만, 두날개에서는 목표가 사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비전으로 뭉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하고 싶다. 현재의 교회가 지금처럼 지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했으면 한다. 사단법인으로 세운 두날개선교회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비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요한 기자>

# 작은 교회 청소년 섬기기, 애틀랜타 넘어 미주 전역 퍼지길



KCM 학생들이 작은교회 청소년을 섬기기 위해 화이팅을 외쳤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작은교회를 위한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UGA 한인 기독교학생회(이하 KCM, 회장 케니 백)가 지난 21일 두란노북마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임의 시작부터 준비까지 그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증거했다.

사일런스 엑소더스로 많은 수의 한인교회 2세대들이 빠져나가는 이민사회에서 1.5세, 2세대들이 주체가 되어 작은교회 청소년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행사는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40여개 교회 청년부 학생들로 구성 KCM 멤버들은 누구보다 작은 교회 청소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모두가 다 수련회를 가는 여류이지만 청소년 그룹이 소수이거나 담당 사역자가 없어 수련회를 갈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학생들은 이들을 돕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시간도 재정도 여의치 않았다. 청소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는 한 명당 최소 200불의 실비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등록비를 100불로 잡고 부족한 1만여불은 도네이션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제를 만드는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지만 각 교회와 부모님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준비하며 '우리는 작은 힘을 모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미 한번 개최한 나뉠의 노하우(?)와 작년 참석했던 학생들의 관심, 6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과정으로 더 좋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가득하다. KCM은 찬양, 상담, 홍보 등 각 프로그램 리더들을 세우고 준비 모임과 연합 예배, 기도회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상담이다.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각 학교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아카데미 상담과 마음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신앙 상담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은 작년 수련회 이후로 꾸준히 연락하며 신앙의 선배들을 멘토로 삼고 있다.

이번 수련회가 더 기대되는 것은 청년/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Jae Park 목사(뉴저지 그

레이스커뮤니티채플 담임)가 나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나(Who am I? You and I)'를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서 Jae Park 목사는 코리아-어메리칸 청소년들이 믿음과 건전한 정체성,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CM은 "가장 큰 소망은 이 작은 움직임이 애틀랜타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널리 퍼져 1.5세, 2세대이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모임을 기획한다면 힘이 닿는대로 돕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수련회의 참석 대상은 가을학기 7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12학년이 되는 학생까지며 청소년들의 안전과 밀도 있는 신앙경험을 위해 훈련된 대학생 리더 1명당 청소년 5-6명이 한 그룹이 되어 집회기간 내내 함께 생활하도록 준비한다. 총 참가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등록비: \$100 등록방법: 우편 등록(교회단위로 단체등록 권장, 자세한 사항은 공식웹사이트 http://ugakcm.org) 문의(영어/한국어): 유명균 (678-687-1181) 백경원 (404-644-4374) 주최: University of Georgia 한인기독교학생회 <김앤더슨 기자>

## 올해 뉴욕 할렐루야대회 강사는 김삼환 목사

### 뉴욕교협, <제 2차> 실행위원회 진행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성인, 유년부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강단에 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이하 뉴욕교협)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 모임을 갖고 이날 밝혔다.

김 목사가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강단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목사는 지난 1991년과 2000년 두차례 강사로 초청된 바 있으며, 김 목사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대회에 나선다.

실행위에서는 대회 준비를 위

한 기도회도 갖기로 결정했다. 1차 기도회는 4월 19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2차 기도회는 5월 10일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3차 기도회는 6월 3일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진행된다. 4차는 미정이다.

또한 실행위에서는 올 신년하

례회부터 제정된 뉴욕교협 목회자상에 이어 내년부터 뉴욕교협 평신도상도 만들기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뉴욕교협이 개최하는 행사로는 부활절연합예배(4월 4일 오전 6시), 청소년농구대회(4월 10일 오전 9시), 교협체육대회(5월 31일), 영적각성집회(5월 28일~30일), 할렐루야청소년대회(7월 15일~17일) 등이 있다.

<오상아 기자>

협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특별후원: 기독일보 아시아나항공

# 명품 건강검진

##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신문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의 명품의료관광!

“백인종 대동맹수 수상에 걸맞은 아주관광이 준비한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 한국최초의 아산병원과 함께하는 명품의료관광의 기회를 놓치지하세요!”

- 1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전문의를진료에 아주관람에 파견하여 무료 건강상담 및 건강 증진 센터 프로그램 수혜  
49명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상주 - 즉각적 대처 가능 - 검사대행/결과해설 서비스 제공, 암 발생시 30일내 진료서비스 제공
- 1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스페인 웨보 매트리스 병력서 국내 병원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병원 선정 (2009년 6월 17일)
- 1 **'2009 글로벌 고객만족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환자중심의 관리중진 실천,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 높은 평가 ‘의뢰의 질’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서도 한발 앞서 일본능률협회인증, 10만명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 7월 24일)
- 1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 치료 암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최다 시행 병원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중앙표지자(간암,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동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A, [남] 중앙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중앙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엑스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 기독일보 - 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혜택:

**기독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 기독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제공
-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혜택

-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www.usajutour.com

**아주관광**

1위

대표전화 (213)388-4000

서울 02-522-8686

1-800-933-3011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 선교는 관계에서 시작돼 겸손과 섬김으로

21세기를 사는 미주 한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을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몽골국제대학교에서 교수로 5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가 시카고에서 “21세기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비전”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함께 답을 모색했다. 이 세미나에는 시카고 지역의 선교관심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하영택 목사(참길장로교회 담임)가 사회를 맡고 심양섭 전도사(Josiah Spirit 대표), 심호경 간사(인터콥선교회 간사), 윤국진 목사(시카고예수사랑교회 담임), 임현석 목사(NIM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선교사의 발제 후, 패널과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발제와 패널을 맡은 참석자들. 하영택 목사(참길장로교회 담임), 심양섭 전도사(Josiah Spirit 대표), 임현석 목사(NIM 대표), 이용규 선교사, 윤국진 목사(시카고예수사랑교회 담임), 심호경 간사(인터콥선교회 간사)

## “21세기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비전” 포럼 열려

이 이용규 선교사는 선교의 개념을 ‘관계’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서 살라고 하셨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그 자체를 통해 선교가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거듭난 기독교인은 누구나 선교사이며 선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진지함 없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선교는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돼 그 겸손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 선교사는 “모든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겸손”이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아르메니아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를 보고 형식에 치우쳤던 비판하지만 정도의 차이로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그들이나 마찬가지”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가

좀더 깨끗하니 우리 것으로 색깔하자”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겸손과 섬김 없는 선교 대상자들도 선교사를 불편하게 여길 수 밖에 없고 선교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선교는 삶을 통한 선교이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 이뤄지는 선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맺음과 연합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 나와 동료 선교사, 나와 현지인들 간의 온전한 관계와 연합이 없는 사역이 확대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자

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나오면 몇 년 후에 그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선교사는 그동안 서구선교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인본주의적 선교 태도를 경계했다. 인류학, 사회학, 통계학에 근거해 선교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수치화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이었던 셈이다. 이 선교사는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앞당겨 드리지”는 생각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비

판했다. 한인교회는 선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선교사는 “바울의 세계선교도 유대 밖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라며 “미주 한인들은 선교에의 부담이 무엇인지 알고 주변인으로서 상처 받는 것, 놀리고 억압받는 것, 관계가 깨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쓰실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한인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 선교사는 “개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겸손하게 인력과 물질, 리소스를 공유하면 더 풍성하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으며 특별히 시카고 지역의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에 관해서는 “회개”를 답으로 내어 놓았다.

이 선교사는 “교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며, 목회자가 원인제공자라 볼 수 없더라도 목회자에게 먼저 회개와 탄식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준형 기자)

## J-Gen 부흥회 “Inside Out”

J-Gen의 청소년 연합 부흥회가 올해는 “Inside Out”이라는 주제 아래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가나안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부흥회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5백명 이상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참석하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됐다. J-Gen은 정체성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2세 청소년들 내면에 숨겨진 고민을 과감히 드러내며 회복과 치유를

## 26일~ 28일까지 가나안비전센터

모색하기 위해 평신도 사역자인 김 박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사회학자로서 한인 2세 정체성, 1세와 2세의 관계, 가정, 2세의 미래 등에 관해 연구해 온 김 박사는 미시간주립대를 졸업하고 그랜드래피즈신학교에서 M.Div., 미시간주립대에서 사회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다. (김준형 기자)

# 목회와 상담의 접목은 선택 아닌 필수

지금 시카고 지역 한인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제1의 요구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까? 한인들의 부부 문제, 부모자녀 문제, 정신적 고민 등에 대해 관심

에 대해 고민했다. 이 자리는, 같은 고민을 가진 신학생들 가운데 시카고신학교(CTS)에서 목회 상담 분야로 D.Min. 과정을 공부하는 최영숙 목사가 시카고신학교 선배이면서 심리학자, 상담가

사, 맥코믹신학교에서 공부 중인 서평원 목사, 김지영 준목,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사모인 김은아 목사, 이영신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서해석, 기독교 교육, 회중리더십, 가정상담 등 관심 분야

부정적 결과를 얻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 주려 하거나 혹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동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가정에서 찾았다.

그녀는 “가정은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인사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면서 “자녀들 안에 존재하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과 부모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고 전했다.

최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수행



주일 오후, 목회와 상담에 있어 공통의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종려나무 교회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해 온 심리치료 사역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참석자들과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영숙 목사는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우리부터 우리의 가

정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생각하게 됐다. 이것에서 시작해 한인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목회적 돌봄을 펼치는 단초를 찾아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준형 기자)

## ■ 신학생 목회자들과 선배 최선주 목사 만남

을 두고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 관심을 가진 신학생들이 종려나무 교회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8일 주일 오후 6시, 10여명의 신학생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종려나무교회 최선주 목사의 13년 임상심리와 상담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상담의 접목

인 최선주 목사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주선한 자리다. 최선주 목사는 시카고신학교에서 심리학으로 Ph.D.를 받고 13년간 심리치료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종려나무교회를 엘크그로브빌리지에 개척했다.

이 자리에는 시카고신학교에서 공부 중인 허정섭 목사, 최우진 목사, 최영숙 목사, 박시문 목

가 모두 다르지만 이민 가정의 치유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 최선주 목사는 “목회에 있어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담이 목회의 한 분야로만 취급되거나 혹은 제대로 된 기초없이 상식과 직감에 의지해서만 이뤄지면서

##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 하는

### 2000년전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 성지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 **\$2450**

○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 **\$2800**

○ 방문지: 카이로, 시나산, 타바, 에일라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음바, 갈릴리, 가버나움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벧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OPTION**  
시나산 낙타등반, 홍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usajutour.com

Tel. 213-388-4000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p><b>갈릴리산교회</b>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churhc.com</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강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p>	 <p><b>구세군나성교회</b> 담임: 김경운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예배 &amp;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p>	 <p><b>그레이스마운트교회</b> 담임: 김기한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p>
 <p><b>나성소망교회</b>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등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 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 박현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p>	 <p><b>나성한인감리교회</b> 담임: 남국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20 2부예배 오전 9:30 한국학교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뮤직아카데미 - 4부(청년) 오후 1: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p>
 <p><b>남가주동신교회</b> 담임: 손병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b>남가주리디머교회</b>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p>	 <p><b>남가주명성교회</b>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 권경국 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30 중·고 예배 오전 11:00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F. (310) 719-2229</p>
 <p><b>동양선교회</b>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c.org</p>	 <p><b>드림교회</b>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 신규국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p>
 <p><b>소중한사람들</b>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p>	 <p><b>새생명장로교회</b>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주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p>	 <p><b>새창조교회</b> 담임: 최항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p>
 <p><b>세계성경장로교회</b> 담임: 강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p>	 <p><b>힘있는교회</b>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p>	 <p><b>아름다운교회</b> 담임: 고승호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b>오렌지새영교회</b>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일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b>인랜드교회</b>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p>	 <p><b>임마누엘헬로십교회</b> 담임: 안총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52) 944-8082</p>	 <p><b>에바다선교회</b> 담임: 이승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p>
 <p><b>예수마을교회</b>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b>주님찬양교회</b>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p>	 <p><b>중앙아시아선교회</b>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 (626) 533-5300 / F. (626) 912-7453</p>	 <p><b>축복교회</b> 담임: 김경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중)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p>	 <p><b>충현선교회</b>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p>
 <p><b>코너스톤교회</b>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p>	 <p><b>파사데나장로교회</b>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9시, 정오 12시 수요예배 오후 7:45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p>	 <p><b>하나로교회</b> 담임: 박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p>	 <p><b>한인어린이회</b> 회장: 테레사 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p>
 <p><b>함께하는교회</b>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p>	 <p><b>헤브론교회</b>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회(심론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p>	 <p><b>Coffee Break Small Groups</b>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p>	 <p><b>SL 임마누엘선교회</b> 담임: 백경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p>

# 인생의 고난, 부활의 소망

김승욱 칼럼



김승욱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한 주간 걸으셨던 발자취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때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고난

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빌 3:10)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 항상 부활절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의 권능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신 '고난의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은총을 공급받아 잘 견딜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린 참된 소망을 붙잡고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그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친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자리를 지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산호제 근방에는 지금 봄이 한창이다. 원래 비가 적은 곳이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비가 내려 사막 같던 들과 초원 그리고 산은 마냥 푸르거만 하다. 곤충과 짐승도 기지개를 켜고

수에 밀어 넣는다는 곳, 자주 학교가 눈 때문에 문을 닫는다. 모든 비즈니스가 울스탑이다. 필자는 또 다른 봄을 늘 마음에 안고 산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살았던 황해도의 초가삼간, 20여 채가 모여 사는 강촌

## 봄맞이

그들의 본능인 번성을 위해 짝을 찾느라 한창이다. 움츠렸던 나무들은 연녹색의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고 장미는 한두 주 사이에 붉은 가지에 꽃망울을 맺기 시작했다.

다른 여러 가지 꽃들도 봄 냄새를 맡으며 제 세상을 만난 듯이 꽃봉오리를 크게 부풀린다. 새들도 물이 오른 가지에 앉아 청아한 목소리로 솔로를 하다가는 다른 새들과 멋진 합창을 한다. 풀 꽃 나무 짐승 새 모두가 봄맞이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 곳 사람들은 봄에 대한 설렘이나 흥분을 별로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이유는 살을 빼듯 추운 겨울이 없이 일 년 내 내 봄날 같아 어디를 가나 정원이 나 길 가에서 꽃을 볼 수 있기에 특별히 봄을 의식 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부엌집 애들이 고급 음식점에 가도 별 반응이 없듯이- 필자는 혹독한 겨울이 긴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다. 자동차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덮이는 곳, 강한 바람이 어린애를 호

의 봄이다. 전기도 병원도 학교도 파출소도 없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늘이 주는 춘하추동이 확실하게 있었다. 약 3개월의 봄은 예년과 같이 찾아오는 것이다. 또 있다 인정이다.

남에게 빼앗기고 내 것이라 고 말 못하면서 내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인심이 좋은 곳이었다. 저는 미국시민으로 그곳을 떠난 지 40여년 만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 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너무도 실망했다. 반세기가 흘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곳은 40여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가난과 굶주림을 그대로 안고 사는 모습은 고향을 찾아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왜 사람들은 봄을 좋아 할까? 이유는 봄이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온다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거나 화난다고 연기 하는 법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도 없이 그렇다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흔히 믿었던 친구나 친지에게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봄을 통하여 대신 기대치를 채우는 점도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온유하고 따뜻하게 나에게 대해주는 사람, 만날 때 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반대로 찬바람이 부는 겨울 같은 사람을 가능한 피하고 싶다.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기에 다시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한 가지 묘안이 생겼다. 봄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 어느 성인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말씀이다. 봄이여 영원하라.

박성근 칼럼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필로우크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보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계기판.

또 하나는 감정적 계기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계기판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의 문제들도 메마른 감성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잡아주지 못하고, 받아 주지 못하는 감성의 빈곤함이 관계성을 깨고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감정적 계기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혹시 최근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화를 자주 내어 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

## 건강의 계기판

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육체는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정기검진도 받고 또 헬스클럽이나 건강식에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감정적 계기판은 우리의 감성지수를 측정해 줍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성이 매달라가고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분주한 삶에 묻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탓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면, 한번쯤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을 추슬러 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계기판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계기판은 자신의 영적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줍니다. 기도의 삶과 말씀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외형상 착실한 크리스천처럼 보여도, 만일 기도 생활이 매달라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상태

에서는 건강한 영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영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면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꿀송이처럼 달아날 말씀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다면 어디엔가 병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체적, 감정적, 영적 계기판은 정상입니까?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리 기보다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완벽 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구글이 실험단계에서 도약하고 있을 때,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2003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를 겨냥해 "2~3년 후

위 10개를 선정하는 '뉴스위크 20/10' 코너를 마련했는데, 게이츠의 이 발언을 '최악의 빛나간 예상'편 7위에 뽑혔습니다. 현재 구글의 가치는 1000억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봐도 자칭 모 두가 지식인이라는 사회 속에

## 빌 게이츠의 실수

에도 구글 친구들이 사업할지 두고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당시 "그들은 역 만장자와 록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디 보자"며 구글의 몰락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며 현재는 MS를 위협하는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뉴스위크 인터넷 판은 21세기의 첫 10년을 되돌아보며 20개 주제를 정해 항목마다 상

살아가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체합하고 알고 있는 세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음에도,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가 있다면 특별한 표적을 더 보여 달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

박용덕 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OPEN 7DAYS A WEEK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 정인량 칼럼



정인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사순절은 부활절 준비기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인생

에 있어도 고난과 고통의 계절을 거쳐야 성공과 승리의 삶을 맛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시련의 기간이 길다고 느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 경험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길고 긴 동절기를 보냈다. 좋아하던 이들의 떠남, 사랑하는 이들의 원치 않는 병마의 고통, 열정의 헌신에도 제자리걸음의 목회, 유난히도 잦은 대지진의 공포, 부활이 치미는 핫 이슈 만발의 정세 이런 것들이 올 겨울의 총화이다.

그러나 지리한 겨울을 지내는 것은 인간이지 자연은 아니다. 플랜 창설이 들성들성 남아있어 아직 봄은 저만치 물러서 있었지만

대지의 부활은 언 땅 밑에서 이미 용솨음치고 있었다. 폭설로 아름다운 숲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새순의 생명의 부활까지는 앓아가지 못한 까닭에 새들의 노래로

그 상처들을 보듬고 있고, 어디서 한동(寒冬)을 지냈는지 다람쥐 두 마리가 쫓고 쫓기면서 널브러진 고목 위를 시소 타다 잠깐 졸고 있다.

시들은 꽃대 가을결이를 하면서 심어놓은 각가지 구근들이 경쟁하듯 올라온다.

봄은 계절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생각하면서도 문득 수선의 새들이 잔 별을 쬐고 있음을 발견하고서 야 희열의 탄성으로 마음에 진득

이 머문 겨울을 털어 버린다. 하기는 칼바람에 발갛게 달아오른 손주 녀석의 두 뺨속이나, 재잘거리며 학교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봄은 이미 한탈음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윗왕의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

다한다. 유대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쉬(Midrash)』의 '다윗왕의 반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윗왕이 어느 날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 명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이에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거기에 새긴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때 왕자가

일러준 글귀인즉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다는 것이다.

창가에 기대어 이런 저런 알큰한 봄꿈에 취하다 그도 싫증나면 뒷마당을 건들건들 거니면서 더디 오는 봄을 타령으로 불러볼 행운아가 몇이나 될까 보나만은 그레도 봄은 오고 있다.

아니 오고야 말았다. 왜냐면 솔로몬의 말대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과 고난주간성금요일이 지나 부활의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간절히 기다린 부활의 새벽이다. 울려펈 함박 춘설(春雪)로 봄꽃이 참 좋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생명의 부활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의 가정에도 보통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두막의

있었습니다. 메리는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푼푼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성경을 갖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리는 마침내 성경을 살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무려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잔값에 성경을 살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1804년 생긴 것이 '영국 성서 공회'입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에 성경을

그 성경을 얼마나 애독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집에에는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는 "내가

### 문창선 칼럼



문창선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많이 먹는데 신령한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은 하지 않고 반대의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메리 존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일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쳤으면 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우리 말 속담이 있듯이 성경을 애독하고 그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영국에 메리 존스(Mary Jones)라는 시골 처녀가

20마일(32 km)을 걸어가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메리에게 성경을 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리의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 그리하여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메리에 대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도 메리 존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며 푼푼이 모은 돈으로 20 마일을 걸어가 성경을 샀던 메리 존스!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마 4:3). 그 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대박

### 한방 칼럼



이명종 교수  
LA 동국대 한의대학 재활학과

고지혈증이란 병을 가진 사람을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피(혈청) 속에 기름기가 많아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동맥경화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나 또는 중성지방 같은 지방물

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뇌경색(중풍) 그리고 팔다리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동물성 지방의 과다섭취 및 비만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아울러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는 식이(총칼로리량 과다), 운동 상태(운동부족),

젓고,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도 설탕, 과당과 같은 단순 정제당은 피하고, 야채, 해조류, 통곡 식류를 통해서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해야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지혈증을 몸에서 담음 어혈 같은 이물질이 섞여 생기는 것으로 이해

것은, 운동은 온 몸 구성구석까지 산소를 보내어 불필요한 지방질을 태워내므로 반드시 운동을 같이 해 주어야 지방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고지혈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많이 낮아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HDL-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타기와 같은 운동으로 매 번 30~40분 정도, 1주일에 4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 고지혈증, 너무 걱정 마세요!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점이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이고, 그래서 흔히들 침묵의 살해자(silent killer)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별, 연령, 체중 등에 따라

질병상태(당뇨병, 갑상선, 신장질환 등) 또는 복용하는 약물(이뇨제, 베타 차단제, 호르몬제) 등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을 예방이나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동물성 지방은 피하고 야채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 음식을 줄여야 하

합니다. 우리의 몸은 피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가 탁해져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혈이라 하고 하고, 물, 즉 진액이 탁해진 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침을 써서 치료하게 되면 막혀 있는 기운을 다시 돌리게 되어 정체되어 있던 어혈과 담음을 녹여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WWW.UKOPIA.COM

미국이 보인다!



- 유코피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는 메인페이지
- 재밌는 뉴스, 정보 가득한 미국가이드, 튜는 칼럼
- 손쉽게 찾아보는 미 전역 한인업소 정보
- 알차고 독특한 미국 여행 정보
- 365일 계속되는 경품이벤트
- 미국 대표도시들의 길라잡이 시티가이드
- 할리웃 스타들의 세계를 소개하는 유코PIA사이드
- 미국생활/관광의 할인 쿠폰이 "팡팡"



# 프랑스, 개신교화 직전에 학살로 무너지다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종교 전쟁과 바돌로메 대학살

종교 전쟁(1562년-1598년)과 바돌로메 대학살(1572년 8월 24일)

## 1. 종교 전쟁

바지에서 학살을 자행한 학살의 주범 기즈가 1562년 3월 16일에 종교적 승리자가 된 것처럼 파리로 입성하자 위그노들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 일전에는 위그노들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라 하여 '위그노 전쟁'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종교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 전쟁은 여덟 번에 걸쳐 36년간 전쟁과 휴전을 계속하다가, 1598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으로 평화시대가 도래된다. 하지만 앙리 4세가 광신적인 가톨릭 교도인 프랑수와 하바이악(Francois Ravalliac)에게 암살되면서, 루이 12세와 13세 시대에 칙령 취소로 시도하다가 마침내 1787년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칙령으로 낭트 칙령은 취소되고 다시 위그노 박해가 시작된다.

전쟁 기간 중 1572년 8월 24일에 발생한 바돌로메 축제일 대학살은 위그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 2. 바돌로메 학살의 배경

제3차 종교전쟁이 1570년에 끝난 후, 까뜨린은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자신의 자녀들과 개신교국의 정략 결혼을 시도한다. 딸인 마고(Marguerite de Valois)는 나바르 왕국의 앙리(훗날 앙리 4세)와, 아들 앙리 3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시키려 하지만 마고의 결혼만



대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폴리니의 저격 장면.

성사시킨다.

당시 위그노의 수장이며 왕의 중요한 자문관이던 가스파 드 폴리니(Gaspard de Coligny)는 독일 신교도 제후들과의 동맹을 통해 합스부르크 가문과 맞서므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플랑드르(Flandre) 지방을 공격하여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자고 왕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가톨릭 진영의 기즈 형제와 모후 까뜨린 역시 딸 엘리자베스가 스페인의 왕비로 있었기에 전쟁을 원치 않았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으나,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된 까뜨린은 왕이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친밀하며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폴리니 제독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1572년 8월 18일, 앙리와 마고와의 결혼식을 행한다. 기즈 암살 사건과 종교 전쟁으로 인해 극도로 약화된 가톨릭과 개신교의 관계 회복으로 위기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 결혼은 대외적인 연극일 뿐, 개신교의 수장인 폴리니 제독의 제거에 대한 욕망은 사그라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술수에 탁월했던 까뜨린은 폴리니 제독을 직접 제거하는 일에 무모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당시 아버지 기즈를 이어 위그노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던 아들 앙리 기즈(Henri de Guise)는 폴리니 제독이 기즈 형제와 모후 까뜨린 역시 딸 엘리자베스가 스페인의 왕비로 있었기 때문에, 까뜨린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독 제거의 거사를 기즈 가문에 맡긴다.

그리고 결혼식 4일 후인 8월 22일 오전, 가스콘 출신의 한 장교는 화승총으로 폴리니를 저격하지만 왼쪽 팔에 부상만 입히게 된다. 이 사건으로 결혼식은 혼란 가운데 끝났으며, 폴리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그노 지도자들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위기에 몰린 왕과 까뜨린은 가톨릭 진영의 지도자들로부

터도 위그노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했다는 비판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까뜨린은 이 사건이 쉽게 무마될 수 없음을 알고 위그노들을 다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심한다.

그리고 8월 23일 바돌로메 축제일 전날 밤 11시에 생 제르망 룩스루와 성당의 종소리가 학살의 신호였으나, 거



생 제르망 룩스루와(Saint-Germain-l'Auxerrois) 성당

뜬다는 전략 회의로 축제일인 24일 새벽 3시에서야 종소리가 울리면서 부상중인 폴리니를 살해하는 것을 기점으로 대학살은 자행되었다.

흰색 십자가와 스카프를 한 왕의 군대는 먼저 루브르 근처 생 제르망 룩스루와 일대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온 2백명 가량의 위그노 귀족들이 머물고 있는 보주 광장으로 가서 학살했으며 그들의 시신을 루브르 왕궁 마당에 모았다.

기즈의 군대와 갈뱅의 폴레쥬 몽테규 동문인 이나스 드 로울라가 만든 예수회 소속의 성직자들이 학살에 앞장 서게 된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잔인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옷을 벗겨 길거리로 내동댕이칠 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약탈하였다. 상상 이상의 잔인한 학살로 인해 왕은 정오에 학살 중단의 명령을 전달하였지만, 명령을 알리는 군대의 나팔소리로는 폭도들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약탈자들은 평소 자신의 종교에 그다지 신실치 않은 가톨릭

교도들마저 살해함으로써 가톨릭 국가로서의 모습을 정비하려 하였다. 시신들은 강물 속에 던져졌고, 강물은 핏줄기가 되어 흘러갔고, 거리들은 피와 시신의 냄새로 코를 찼다.

파리에서 시작된 대량 학살은 그렇게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 3. 전국에 걸친 학살

이 끔찍한 만행은 파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부분의 도시로 번져나갔으며 처음 3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명의 위그노 신자들을 죽였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불과 1주일 만에 7만명 이상의 위그노들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목으로 살해하였다. 반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위그노들을 죽인 이 날을 축제일로 지정하여 기쁨에 도취하였고, 대학살의 소식을 처음 전해 준 기즈 가문의 로렌 추기경에게 1,000 ecus라는 엄청난 포상금을 하사하였다.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 GLOBAL VISION BANK

###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 27일 시애틀서 한미애국단체연합 발대식 가져

#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가속화 될 것”



한미애국단체연합 발대식 장면

6.25 참전 국가 유공자회, 고향선교회, 베트남전 참전 국가 유공자회,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 한미 자유 수호 연합, 서북미흥사단 민족 통일운동본부, 대북 풍선 선교위원회, 원로 목사회가 연합한 한미 애국 단체 연합의 발대식이 지난 27일 웨드럴웨이 KO-AM TV 공개홀에서 열렸다.

한미애국단체연합은 명예 회장으로 박남표, 회장에 이양춘, 부회장에 이창구, 사무총장 이창래씨를 선임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국내외 중북 좌익세력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춘 회장은 “현재 김정

일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불모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법집단이 되었고, 최근 화폐개혁 실패 등 경제파탄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외면한 채 어린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는 한심한 실정”이라며 “독재자 김정일은 남북한 겨레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 이날 강사로 나선 리버티 헤럴드 대표 김성욱 기자와 서정갑 본부장은 북한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실상과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좌익 세력들의 활동 상황을 고발하

며 참석자들에게 좌익사상의 위험성을 일깨웠다.

김성욱 기사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본국과 해외의 친북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노력과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두 정권 동안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뱃지산의 민주화 유공자 선정, 국가 보안법 철폐, 한미연합사 철수 등 본국의 좌경화가 급속히 진행됐다”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김정일에게 바치겠다는 사고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고 이를 위해 애국 단체들의 연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강연자들은 미국 동포들의 주민 돕기라는 명분으로 쓰러져가는 북한 정부를 살리는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대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북한을 위해 합심기도한 참석자들

## 북한 아이들위해,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샘 시애틀지부(지부장 박상원 목사)는 3월 25일 린우드 리빙투게더 미션 센터(대표 이병일 목사)에서 3월 정기 기도회를 갖고 북한 동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기도회에는 지난 2주년 창

설하고 북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이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롬8:2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병일牧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작은 일이지만 함

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북한 내에서의 샘 사역을 소개한 박상원 목사는 “고통과 배고픔으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올해도 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북한 곳곳에 심어지길 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2010년 북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북한의 어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애틀, 웨드럴웨이, 타코마, 오레곤)지역 별 기도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되는 북한 단기 의료 봉사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등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샘 시애틀 지부 3월 정기 기도회 열려

립 선교대회 때 참석하고 샘 사역을 알게 된 후원자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했다.

기도회에 처음 참석한 후원자들은 “북한 아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 “아이들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왔다”,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려 오게 됐다” 는 등의 기도회 참석 이유를

말하고 북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타코마 지역 한 어린이가 \$8.78의 동전을 모아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샘의 동전 모으기가 1만 달러를 넘어 선 것은 작은 힘을 합하여 사랑을 이룬 것이라 매우 고무적이며 하나

## 벨뷰한인장로교회 조영훈 목사 사임

벨뷰한인장로교회 조영훈 목사는 3월 28일 주일예배에서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 목사의 사임은 전임 정병진 목사가 사임한지 2

년이고 “제가 떠난 후에도 당회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자들이 교회와 교권을 장악하고 조 목사에 사임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조 목사는 사임 이유를 묻는 기



벨뷰 한인장로교회

### 고난주간 만큼은 미디어 사용을 절제해봐요

SF사랑의교회(이강일 목사)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를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기간으로 정했다. 교회는 고난주간기간 동안 평소 교회 청정년들이 즐겨왔던 미디어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기간 교회는 게임, 만화, 개인홈페이지, TV사용 등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기로 했다. 〈임형진 기자〉

### 누구도 탓하거나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나 교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 목사는 “제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신 당회원 장로님들 중 4분의 3의 정원으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 부덕으로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 아닌 분쟁을 겪어야 했다”고 사임의사를 밝

히 “제가 떠난 후에도 당회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자의 질문에 “교회를 더 이상 혼란과 아픔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내에 모든 일이 안정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뷰한인장로교회는 조영훈 목사가 부임하던 2009년 1월 당시 80여 명이던 성도들이 최근까지 성인 출석 성도만 200여 명에 달하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지 함해 3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난 1월까지 사람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마지막 설교에서 “인생에서 어떤 연단과 시험이 오더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것과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며 눈물로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한편 사임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 전부터 교회 중직들로 부터 행정권과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고 최근에는 설교만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진 기자〉



패밀리 컴맹탈출!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총 CD 10개로 구성

☑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물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월드,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가,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캐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닥스나 웨이브 등의 웹협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돼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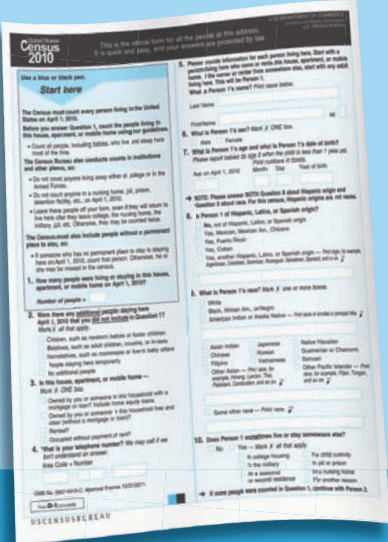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은 많은데 많이를 힘들어 합니다. 나이들었다고 엇그제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당하는 기분... 젊은 사람은 그런것도 모르니 한심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컴맹탈출이 안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의 시각으로 만든 컴맹탈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수도 있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컴맹탈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컴맹탈출!! 자동차 운전은 처음하실때는 누구든지 긴장하다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재미있듯이, 컴맹일 때는 컴퓨터가 무섭지요. 어디를 갈 때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잘 할려고 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고 따라가면 됩니다.

- 마우스 사용법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전 마스터
- CD롬에 넣기만 하면 자동 실행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컴맹이 탈출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사람의 눈 높이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넷 왕초보에서부터 인터넷 박사 과정까지 반드시 배우고 마스터 해야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10가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 학원갈 필요도, 교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http://www.mystanton.com)

# 우리의 10분, 교육환경과 취업기회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킵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10분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커뮤니티의 중대한 서비스와 개발을 위해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인구조사 양식을 기입해주세요.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은 물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귀하의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지 않으신 분께는 정보수집을 위해 인구조사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1-866-955-2010으로 전화하시거나 2010census.gov로 방문해주세요.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세요.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PH PUENTEHILLS HYUNDAI**

# 푸엔테힐스 현대의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남가주 한인 목회자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 4월 연장 세일 결정! -

## 1.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목회자이시면서 소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쁘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 2. 복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딜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 3.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자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 2010 NEW SONATA GLS

서두르세요!  
남가주 한인 목회자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회자들을 위한 '4월 한달 스페셜 세일'

**SALE** \$750 CASH BACK과 0% 특별이자  
(O.A.C) Model #26404 in stock only

**LESABE** \$179 + Tax  
36 Mo/12K mile Drive off 1,499

※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4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찰리 정 /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스티브 장 앤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현대** WWW.PHHYUNDAI.COM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